

한국어 전반의 기초적인 것들을
총괄한 입문서

한국어개론

◎ 전병선 저

민족출판사



한국어 언어학 기원지인 서울에
최고의 교양서

한국어개론

● 문법 4

한글 문법 4

한글 문법 4

한글 문법 4

한글 문법 4

한글 문법 4

한국어개론

전병선 저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概论：朝鲜文 / 全炳善著. —北京：民族出版社，
2007.4

ISBN 978-7-105-08264-3

I. 韩… II. 全… III. 朝鲜语—自学参考资料 IV. H5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057801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北京艺辉印刷有限公司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4月第1版 2007年4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8.5 字数：237千字

印数：0001-3000册 定价：22.00元

ISBN 978-7-105-08264-3/H · 605(朝51)

朝文室电话：58130534； 发行部电话：64211734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7년 4월 제1판 2007년 4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880mm×1230mm 1/32 전지: 8.5 자수: 237천자

인쇄부수: 0001-3000부 값: 22.00원

ISBN 978-7-105-08264-3/H · 605(조51)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머리말

근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면서 한국어 전반에 대해 총괄한 책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 한국어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대부분이 한국어 교과서와 이를 위한 참고서들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한국어를 총괄한 책이 있더라도 그것은 기초적인 것에 제한되어 있어서 일정한 한국어 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 3, 4학년생, 대학원생, 교사, 연구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대학에서 자편해서 강의하던 ‘한국어 개론’ 강의록을 여러 면의 의견들을 귀납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한국어 전반을 총괄하여 소개한 책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국내외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한국어 전반의 기초적인 이론을 총괄한 입문서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어 음운, 문법, 의미, 어사, 방언, 문자 등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도움을 주려 하였다.

이 책은 기초 지식 전수에 힘을 기울인 동시에 기초 이론과의 결합에 중점을 두어 서술함으로써 한국어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론 지식도 얻게 하였다.

이 책은 전통적인 체계와 분석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 언어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어의 현상들을 기술하고 분석하였으며, 견해 차이도 반영하여 한국어의 여러 현상들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한국어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특질 부분을 넣

었으며, 참고 문헌과 한중 색인을 주어 한국어의 이해와 연구에 편리를 주고자 하였으며, 각 장마다 사고와 연습을 주어 각 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응용하는 데 도움을 주려 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는 중 서울대학 명예교수 박갑수 교수님께서 한국어와 관련된 많은 책들을 참고로 제공하여 책 집필에 더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주었다. 이에 대해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선뜻이 응낙하고 맡아주신 민족출판사 조선문편집실에도 성심으로 되는 감사의 뜻을 표한다.

창조히 책을 만들다 보니 부족한 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사정없는 지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앞으로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여 좋은 책을 만들 날을 기대하여 본다.

저 자
2006년 10월

차 례

머리말

제1장 언어와 한국어의 일반적 이해	1
1.1. 언어와 언어의 구분	1
1.1.1. 언어	1
1.1.2. 언어의 구분	3
1.2. 언어의 기원과 한국어의 형성	5
1.2.1. 언어의 기원	5
1.2.2. 한국어의 형성	8
1.3. 세계의 언어와 한국어	14
1.3.1. 세계의 언어	14
1.3.2. 한국어	16
1.4. 한국어학의 연구 방법과 연구 영역	19
1.4.1. 한국어학의 연구 방법	19
1.4.2. 한국어학의 연구 영역	20
제2장 음운론	24
2.1. 음성	24
2.2. 음성의 분류	27
2.2.1. 자음	28
2.2.2. 모음	32

2.2.3. 음절	36
2.2.4. 운소	39
2.3. 음소	44
2.3.1. 음소의 개념	44
2.3.2. 음소 체계	46
2.4. 음운 규칙	48
제3장 문법론	54
3.1. 형태소	54
3.2. 단어	57
3.3. 품사	62
3.4. 굴절	74
3.5. 문법 범주	76
3.6. 문장	97
3.7. 구조 분석	116
제4장 의미론	131
4.1. 의미의 의미	131
4.2.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	135
4.3. 의미 자질과 의미장	140

4.4. 문장 의미	146
4.5. 의미 변화	152
4.5.1. 의미 변화의 조건	152
4.5.2. 의미 변화의 원인	154
4.5.3. 의미 변화의 유형	156
4.6. 화용론	158
제5장 한국어사	163
5.1. 고대 한국어	163
5.2. 전기 중세 한국어	167
5.3. 후기 중세 한국어	169
5.3.1. 음운	169
5.3.2. 문법	177
5.3.3. 어휘	184
5.4. 근대 한국어	185
5.5. 현대 한국어	187
제6장 방언론	191
6.1. 방언의 본질	191

6.2. 한국어 방언의 특성	195
6.3. 한국어 사회 방언	208
제7장 문자론	213
7.1. 문자의 기원과 발달 과정	213
7.2. 문자 체계의 분류	217
7.3. 한국의 문자 발달 과정	222
7.4. 한글 맞춤법의 원리	231
제8장 특질론	235
8.1. 음운적 특질	235
8.2. 어휘적 특질	237
8.3. 문법적 특질	238
8.4. 문자적 특질	241
참고 문헌	245
색 인	248

제1장 언어와 한국어의 일반적 이해

1.1. 언어와 언어의 구분

1.1.1. 언 어

우리는 매일 말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데에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언어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언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언어학자들은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물도 나름대로 의사 전달의 수단을 갖고 있음을 여러 가지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곤충이나 개구리의 수컷이 짝짓기를 한다든가, 꿀벌이 8자 모양의 춤을 추어 꽃이 있는 곳의 방향과 거리를 동료 벌들에게 알린다든가 하는 일들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의 언어만큼 다양한 의사를 전달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논리적인 유추를 이끌어 내는 동물의 언어는 없다. 혹자는 이를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의 질적인 차이라고까지 한다. 그러므로 ‘언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언어’를 지칭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단지 몇 가지의 의사 전달 수

단과는 달리 문장을 무한정으로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창조성이 있다. 단어의 수가 한계가 없는 한 그 단어를 조합하여 만드는 문장의 수도 한계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두고 그것을 지칭하는 말을 쓸 때는 꼭 그 말소리만이 사용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나무를 가리켜 우리는 ‘나무[namul]’라고 하지만 미국인은 ‘tree[tri]’라고 하며, 프랑스인은 ‘arbre[arbr]’라고 한다. 또 지금은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것이 15세기에는 ‘븃롤’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이것을 언어의 자의성(恣意性)이라 한다. 언어의 자의성은 이처럼 어떤 말소리와 그 말소리가 지칭하는 개념간의 결합은 필연적이지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가 자의적이라 해서 한 개인이 말의 의미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어떤 개념을 자기만의 말소리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 질 수 없다. 인간의 언어는 말소리, 단어, 그 단어의 배열 등에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그 체계화된 범위를 벗어나는 말을 할 경우, 그것은 이미 언어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된다. 이 점에서 언어는 사회적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언어는 학습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동물의 언어는 본능적이고 유전적이다. 개구리가 짹짹기 기간에 아래턱을 부풀려 소리를 내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인간은 태어난 후 언어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한다. 어린이는 그가 어떤 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았건 간에,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는 영어를, 중국어를 쓰는 환경에서는 중국어를, 한국어를 쓰는 환경에서는 한국어를 배운다. 이와 같이 어린이는 어떤 언어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2 한국어개론

1.1.2. 언어의 구분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언어는 음성으로 된 기호체계이다. 그러나 언어는 글로 된 것도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말을 글로 써 놓으면 문자 언어가 되는 것이다. 말과 언어는 흔히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문자 언어까지 언어에 포괄하면 ‘말’보다 ‘언어’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말’은 전문적인 술어가 아닌 음성 언어만을 가리킨다.

문자 언어는 우리 언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문자가 없는 미개 사회에서는 언어 생활이 음성 언어만으로 영위되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자 언어에 의해 영위되는 언어 생활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오늘날 보게 되는 신문, 잡지, 교과서, 도서, 사전, 편지, 공문 등이 눈을 통해서 언어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은 문자 언어에 의한 것이다.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보다 더 정제되고 세련되어서 오래 그 모습을 남긴다. 그리하여 그리스 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언어 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문자 언어였다.

그러나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순위가 앞섰다. 문자가 없는 사회는 있어도 말이 없는 사회는 없다. 어린애들의 언어 습득 과정을 보아도 말을 먼저 배우지 글을 먼저 배우지는 않는다. 그리고 언어 생활에서 보면 쓰고 읽기보다는 역시 듣고 말하는 일이 훨씬 많다. 하여 언어 학자가 일차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은 음성 언어라고까지 한다.

랑그와 파롤 언어를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자. 사람마다 그 단어를 발음할 때 약간씩 차이를 가질 것이다. 또 같은 사람이 발음한다 해도 조금 전의 말소리와 지금의 말소리에 미세하게 나

마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발음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라는 개념을 변함없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같은 단어를 지칭하는 발음을 했다고 인정한다. 이때,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는 파롤이다. 이 파롤에서 추출된 것, 즉 언제 어느 때 누가 발음을 하든 ‘학교’라는 발음을 성립하게 해 주는 원 음가를 랑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분과 비슷한 것으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遂行)의 구분이 있다.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행위가 언어 수행이다. 자기들의 모국어에 대해서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 지식이 언어 능력이다.

이렇게 언어를 랑그와 파롤 또는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으로 보았을 때, 언어학자가 연구 대상으로 주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랑그(또는 언어 능력)이다. 그런데, 랑그 또는 언어 능력으로서, 우리가 다루는 언어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얼마간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 자연 언어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절로 배우게 되는, 일상 쓰는 언어가 자연 언어(自然言語)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라고 할 때는 자연 언어를 가리킨다. 때문에 언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연 언어를 가리킨다.

인공 언어는 논리학자들이 만들어 쓰는, 또는 전자계산기에서 쓰는, 기호로 된 언어를 인공 언어(人工言語), 또는 형식 언어(形式言語)라고 한다. 에스페란토(Esperanto)도 인공 언어이다.

언어에는 몸짓 언어, 손짓 언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언어의 의미를 확대하여 편의상 부른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어는 아니다. 손짓 하거나 싫다고 고개를 젓거나 눈으로 윙크를 하거나, 또는 서양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어깨를 으쓱하는 것 등은 역시 의사 전달의 한 방식이다. 이처럼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쓰이

는 몸짓을 몸짓 언어라고 하고 손짓을 손짓 언어라고 한다. 이런 언어들은 의사 전달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언어와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여 언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언어는 진정한 정상적인 언어일 수는 없다. 청각장애자를 위해 만든 수화(手話)도 언어의 한 대용물(代用物)일 뿐 진정한 언어일 수는 없다. 따라서 몸짓 언어와 손짓 언어는 언어의 영역 속에 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 언어의 기원과 한국어의 형성

한국어는 어디에서 온 말일까? 한국어는 어느 어족(語族)에 속하는 언어이며 어떻게 형성된 언어일까? 이와 같은 한국어의 기원이나 계통, 그리고 형성에 관한 문제는 언어의 기원과 떨어져 설명할 수 없다.

인류의 최초의 언어는 어떤 것이었을까? 원시 언어는 과연 존재하였을까? 이런 언어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일찍부터 인간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1.2.1. 언어의 기원

기독교 성경의 언어 기원설 종교 이야기에서 인류 언어에 관한 견해들이 널리 유전되었다.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기독교 성경 구약의 「창세기」에 있는 것이다. 유대교의 신앙에 따르면 신은 에덴동산의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지을 능력을 주었다고 한다. 성서에는 “그래서 주 하나님은 들판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흠으로 만든 뒤에 아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아담이 그것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를 보았다. 아담이 모든 산 것에 붙인

이름은 그 이름으로 되었던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창세기: 2장 19절) 이러한 생각은 모든 언어가 하나의 언어에서 나왔다는 언어의 단일 기원설에 입각한 것으로 성서에서는 ‘온 세상은 같은 언어, 같은 말씨였다’라는 주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후에 인류에게는 무엇 때문에 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성서에서는 후대에 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된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일종의 벌이었으며 바벨탑(Babel塔)의 이야기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바벨탑의 ‘Babel’은 ‘혼란’을 뜻하는데 이는 히브리어의 ‘bibel’에서 왔다고도 하고 ‘Baylon’이 어원이라고도 한다. 이로부터 세계상에는 여러 종류의 언어가 갈라져 나왔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의 언어 기원설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Herodotos)는 자기가 쓴 『사기』에서 기원전 6세기 이집트의 파라오(국왕) 삼메티쿠스(Psammetichus)가 원초 언어를 찾으려고 시도했던 실험을 소개하였다. 삼메티쿠스 파라오는 세계상의 어느 민족과 어느 종류의 언어가 가장 오래가를 알기 위하여 사람들을 시켜 두 갓난 아이를 사람들과 격리시켜 기존의 언어를 접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곳에서 방목하면서 생활하게 하였다. 매일 아이에게 산양 젖을 먹이고 사람들이 그와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년이 지난 후 하루아침 아이의 부모들이 산양의 젖을 가져왔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서 뛰면서 처음으로 뱉어낸 말은 ‘bekes’였다. 파라오가 찾은 바에 의하면 이 말은 소아시아 프리기아(Phrygia) 지방의 언어로서 ‘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헤로도토스는 그의 여행기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실험을 통하여 인류의 최초 언어가 프리기아어라고 믿었음을 소개하였다.

인간의 언어 창조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언어가 인간에 의하